

“사전투표가 박빙승부 가른다”...민주 3050·국힘 2030 공약

여야 사전투표율 높이기 사활

민주, 직장인 몰려李 유리

이번 주 모든 유세 투표 독려

국힘, 투표율 높을수록 尹 유리

청년·노년층 참여율 높이기 총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3·1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집중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병원 앞에서 열린 '의에 죽고 참에 살자!' 서울 동작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9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이 다가오면서 투표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전 막판, 여야는 지지층의 투표 독려에 열을 올리면서 사전투표장을 찾는 유권자의 수에 따른 여야의 셈법도 복잡하게 가동되고 있다. 현재 정가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여당이 유리하다” “코로나 19 여파와 지난 총선 사전투표 부정선거 논란 탓에 야당 지지층의 사전투표율이 낮을 것” 등의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20~30대 남녀 유권자의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20~30대 성별 사전 투표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정 나이대·성별의 사전투표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면 여야간 박빙 승부에도 변화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오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천 55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박빙 대결을 벌이며 여야 모두 사전투표율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 첫날(4일)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사전투표는 진보진영 참여도가 높다는 게 기존의 통념이었지만,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론이 우위 구도를 보이는 상황인데다가 윤 후보의 청년층 지지율이 이 후보를 앞서왔던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어

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2.2%, 응답률 24.7%) 전체 투표 의향자(1981명)의 32.2%가 사전투표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45.6%,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19.5%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해 여당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사전투표 의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른바 무당·부동층으로 분류되는 답변군(지지정당 없음·모름·무응답)이다. 이들의 사전투표 의향은 32.8%에 달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사무위를 참고하면 된다.

민주당은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사전투표 기간이 주말과 겹치는 만큼 직장인이 몰려있는 30대 40대의 사전 투표율이 높은 편인데, 이 후보가 해당 연령층에서 윤 후보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일하는 사람’이 많은 30대 중반~60대 초반에서 우세하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또한 본 투표일에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할수록 이 후보의 지지세를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이 후보와 선대위는 이번 주 모든 유세에서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에는 대선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사전투표가 시행된다”며 “이 후보와 선대위는 사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유세, 선거운동을 본격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권 교체 여론이 과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윤 후보 득표율도 오를 것이라는 판단이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지를 추이를 보면 민주당에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도 내려가지도 않는다. 핵심 지지층이 있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전부 국민의힘의 표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후보의 경우 주 공약 대상인 20·30세대

와 60·70세대 모두에 투표율 변수가 잡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통적으로 임시공휴일인 본투표일 참여도가 낮은 편인 청년층과 코로나 확산에 민감한 고령층의 사전투표율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이날 선대본부 회의장에는 ‘윤석열도 사전투표 하겠습니까’라고 적힌 뒤통기가 내걸렸다.

윤 후보는 전날 경북 포항 죽도시장 유세에서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를 해주십시오. 저도 첫날 사전투표를 하겠다”며 지지자들의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이는 보수진영 지지층 일각에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주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선대위 ‘남부수도권 구상 실현위원회’ 출범

영남·호남·제주권 묶어

초광역 경제권 ‘메가리전’ 실현

호남·영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초광역 단일 경제권, 이른바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만드는 ‘남부수도권 구상 실현위원회’가 출범했다.

남부수도권 구상 실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남부경제권위원회’를 후보직속 기구로 승격한 것으로, 이 후보가 직접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이는 이 후보가 자신이 내놓은 ‘남부수도권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이며, 이를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위원회는 지난 28일 대구에서 출범식을 했다.

이 후보는 “영남·호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초광역 단일경제권, 이른바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성주(전북), 김승남(전남), 송갑석(광주), 송재호(제주), 김경호(경남), 박재호(부산), 이상현(울산), 홍의락(대구)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지역 경제인 9명과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남부수도권 구상’의 주요 내용은 영·호남, 제주를 포함한 남부권 전역을 아우르는 신산업벨트로 조성해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금융 지원 실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영호남의 기존 주력 산업인 조선과 철강, 기계·장비, 정유 등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고첨단 소재, 항공우주, 수소, 미래 모빌리티, 2차 전지와 같은 미래 산업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지원도 주요 내용이다.

교육·의료·문화 여건을 현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해 청년 등 인구와 산업이 모여들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동대구역 유세장에서 열린

는 위원회 발대식에서 “남부수도권은 중장기적으로 싱가포르, 홍콩 같은 국제금융과 무역의 허브가 될 것”이라면서 “기존의 제조업 인프라와 미래첨단 신산업을 융합해 대안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힌 예정이라고 민주당이 전했다.

그는 현재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3분의1 수준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최대 절반 가까이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 일자리 400만 개·인구 2400만 명·평균 지역 경제성장률 5%대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김대중정부는 ‘수도권 동북아중심 구상’으로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한 비전의 초석을 만들었고 노무현정부는 ‘충청권 행정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열었다면 저는 ‘남부수도권 구상’을 완성해 대한민국을 세계 5위 국가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3일부터 6·1 지방선거 입후보자

출판기념회 금지...공무원 사직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등은 이날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는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

능하다.

또한, 3일부터는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 출연이 제한된다.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 출연도 금지된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이달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당해 지자체장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http://www.greenfuneral.kr/

光州市민의 장례식장은, 그린장례문화원!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의 名家

광주시청에서 10분, 용전사거리에 있습니다.

사전상담하시면 특별한 혜택 이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입소문 6선!

1. 호남-88-남해C 진출구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
2. 동시 주차 1천대 분관 일체형 주차타워
3. 동시 접대 350명 장공 등 VIP접객실 13개소 완비
4. 가격은 저렴하고 품격은 최고의 고감도 의전서비스
5. 세계김치문화축제 대통령상 수상 음식 맛 최고
6. 창업주 이나소사이머티 정회원 국민나눔대상 수상

창업주 김 영 관 회장

상담 문의 250-4455

광주광역시 하서로 663길 97(용전동 1213-17)